

“30층 대광아파트 신축에 일조권 침해”

광양 중마동 주민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제출 “소음·분진 문도 못열어... 허가 해 준 市가 문제”

광양시 중마동에 신축중인 높이 30층의 대광아파트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중소도시 아파트의 고층화, 미분양 등 복잡한 배경이 있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19일 광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중마동에 건축중인 대광로제비양

아파트의 공사중 소음·진동은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30여 명의 씨니벨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날 광양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아파트 문을 열수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입주민들이 악덕기업으로 단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강

조했다. 씨니벨리 아파트 주민들은 101동과 102동은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광양제철 고대 근무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1동의 경우 132세대 중 13세대 밖에 분양되지 않을 정도로 입주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 하락 및 이미지 실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명길자(여·50) 씨니벨리 아파트 입주주민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각종

민원을 대광아파트 현장과 광양시에 제기했으나 협의만 했을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양시가 도심하복판에 경관을 해칠수 있는 30층 아파트를 허가해준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초 준공된 씨니벨리 아파트는 449세대 중 290여 세대가 입주한 가운데 미분양 160여 세대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5월 착공한 대광아파트는 광양시 중마동에 709세대를 2014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첫 경매 시작한 보성 회천위판장. 지난 19일 이른 아침 회천면 물양장에 위치한 보성군 회천수산물위판장에서 첫 수산물 경매가 열렸다. 보성회천수산물위판장은 청정해역 특산물에서 잡히는 싱싱한 수산물의 위판과 판매와 시식 등을 위해 보성군이 총 사업비 27억여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준공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남도의회, 제주시 의원 연찬회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19일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2013년 상반기 의정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있는 2012년도 예산결산 승인, 심사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의안 처리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최우수'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2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국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 내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거점보건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및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통합의학박람회 등을 통해 재활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사업으로 6개소를 추진

해오던 중 지난해 도비 등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개소를 추가해 의료 취약지역 재활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 등록,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재활을 통한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거점보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슬로시티 청산도 '힐링 섬' 인기

완도군



민선5기 마지막 1년을 앞둔 김중식 완도군수는 19일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수산물 판로 확대,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슬로시티 청산도 만들기 등을 통해 제2의 청해진시대의 개막을 앞당겼다”고 지난 3년을 자평했다.

먼저, 광주~완도 간 국도13호선 확포장 공사를 완전 개통,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지~고금 간, 노화~소안 간 연륙·연도교 가설사업을 통해 섬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했다.

어장 재배치 사업과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으로, 청정바다 보존과 수산업의 안정적 성장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대도시 학교 영양교사 캠퍼 등을 통해 완도수산물의 판매망을 학교 급식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올렸다.

창립 5년째를 맞는 완도전복 주식회사는 지난해 미화 1200만 달러를 수출, 도내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완도전복주식회사 급성장

해조류박람회 성공 축제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세계슬로길 1호 인증에 이어 올 초 구들장 눈물 국가 중요농어업유산 1호로 지정받은 후 국내 최초로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도전중이다. 이처럼 브랜드 3관왕을 달성한 청산도는 전통과 문화가 어울려져 느낌의 미학을 실천하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의 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길도 관광정보센터 건립, 완

도항 마리나시설, 신지명사십리 자동차 야영장 건립, 웃음 테마촌 건립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 확충에도 주력했다.

이밖에도 도내에서 최초로 2년 연속 빛 없는 지자체를 달성해 재정운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 완도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 행사가 될 2014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 등은 남은 1년의 과제로 남아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기업 유치, 국비 예산 확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군수는 “전국 해조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완도에서 개최하는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시켜 해양테코노폴리스 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완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한 데 묶어내야 한다는데 많은 군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문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파시·선술집... 60~70년대 목포항 재현

목포해양문화축제 8월 2~6일 개최 전국축제 발돋움속 프로그램 다채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전국 대표 축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19일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해양문화축제에서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정체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다.

시는 목포의 맛과 멋,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세계 최초 춤추는 바다 분수 등 장관 조명을 활용한 빛의 향연을 접목시켜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생각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 ‘목포항 해상시장 파시’가 꼽힌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항동 어시장에서 삼학도까지 4개의 바지선을 이용한 부잔교 다리가 설치되고, 이곳에 60~70년대 선술집 등 옛날 선창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 같은 4개의 해상공간을 이용해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피해 만들기 체험·해상 익스트림 스포츠(씨카약, 조빙, 패들보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전통 한선에서의 경제체험과 함께 선창 및 기행 코너와 목포의 5미를 맛볼 수 있는 판매점도 설치된다. 특히 올 축제에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대폭 늘었다.

예술인과 시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풍어 길놀이 ‘용왕 납시오’가 여객선 터미널~삼학도 간 2km 구간에서 3일 동안 펼쳐진다. 선창에서 삼학도를 헤엄쳐 건넌 옛 추억을 되살리는 ‘삼학도 계곡놀이 친구들 바다 수영대회’를 비롯해 온 가족이 참가하는 ‘한여름 밤 해변 마라톤 대회’ 등이 이어진다.

시의회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은 “그동안 명칭만 ‘해양 문화’축제였지만 해양문화가 취약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 같은 우리가 해소할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해상 행사인 ‘파시’의 경우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인원을 통제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1000~2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반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10~19세)	취약아(20~29세)	미취약아(30~49세)
월요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요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양지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볼골레 YONGOLE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